

가온 다솜 2019

가온은 세상의 중심, 다솜은 사랑의
순우리말입니다

VOL
31

가을

 실로암요양원
www.silwelnh.or.kr

가는 다도 2019

CONTENTS

실로암요양원

- 03 삶의 노래
- 04 보호자 인터뷰
- 05 실로암 이야기
- 06 실로암 스케치
건강한 삶 | 활기찬 삶 | 행복한 삶 | 함께하는 삶 | 직원동정
- 11 자립지원서비스 소개
- 12 외부지원 및 도움의 손길
- 13 아름다운 손길(자원봉사자 소개)
- 14 실로암 칼럼
- 15 더불어 사는 삶

원장	박지훈	법인명	사회복지법인	법인대표	김선태 목사	이용정원	30명
설립일	2010년 7월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이용현원	28명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직원정원	29명
						직원현원	27명



삶의 노래



거주인 성옥순
85세 | 2014년 5월 입소



안녕하세요? 성옥순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85세, 뒤돌아보면 언제 이렇게 나이만 먹었나 싶네요. 오빠의 군대 친구를 중매로 만나서 군산에서 신혼을 시작하여 첫 딸을 낳고 남편의 사랑이 지극하여 참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 팔자인지, 내리 딸만 두 살 터울로 다섯을 낳으면서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6살부터 눈이 잘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원인을 알았지만, 배제트병이라고 배제트균이 눈으로 가서 시력을 서서히 잃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몸은 아픈지,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이런 나를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어린 딸을 보자기에 싸서 버리라고 주더군요. 그건 평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을 자연 유산으로 잃고, 시력이 완전히 실명할 즈음에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 하나를 잃었습니다. 10남매 중에 현재 7남매 모두가 잘 자라주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서울로 회사가 옮겨오는 바람에 1972년도에 서울로 올라와서 희미하게 보이는 눈으로 자식들 길러가면서 억척같이 장사를 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자식을 세 명씩이나 먼저 보내고 눈도 점점 안 보이고, 몸도 여기저기 많이 아팠지만, 남편 사랑하나 믿고 살아왔습니다. 더듬거리는 나를 보고, 만날 나는 당신밖에 없다고 하던 남편 덕분에 힘든 세월을 잘 이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것은 딸들과 큰아들은 희미하게나마 얼굴을 봐서 지금도 생각하면 기억이 나지만, 막내아들은 그냥 목소리만 알지 얼굴을 몰라 누굴 닮았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남편이 간경화로 고생을 하다 세상을 떠나고 이곳에 왔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모시겠다고 하는데 자식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내가 결정하고 왔는데 이곳에서 편안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종교가 불교였는데, 교회 가면 눈을 뜯다고 하여 남편과 함께 개종을 했는데 눈을 못 떴습니다. 그래도 한번 결정한 것은 잘 바꾸지 않는 성격이라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침대 앓아서 자식들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엄마가 자식 많이 낳아서 고생하는 것 싫다면서 자식을 많이 낳지 않아 7남매에 손자들은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자식들이 앞 못 보는 애미 도와주면서 대학교 다 나오고 결혼하여 잘들 살고있는 것을 보면 감사하기만 합니다.

한 가지 내 소원이 있다면, 우리 아들딸들 그리고 손자와 손녀 모두 엄마와 할머니 닮아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나도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살다가 천국에 가서 남편을 만나는 것입니다.

시력을 잃어가는 나를 끝까지 함께 해주었던 남편, 81살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살 만큼 살았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지금 곁에 없으니 보고 싶기도 합니다.

이 요양원에서 저를 잘 보살펴주고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고 하여 외롭지는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 날까지 부를 내 삶의 노래는 오직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호자 인터뷰



정진아

조경조 보호자 | 2016년 6월 입소

안녕하세요

조경조 어르신 둘째 딸 정진아입니다. 요양원 입소하기 전에는 어머니가 집에서 혼자 계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위낙 고도근시가 심하셨고, 녹내장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80세 가까이 다 되어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힘든 생활이었지만 원래 살던 집이다 보니 손에 익은 감각으로 더듬더듬하면서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실명하기 전에는 교회도 잘 다니시고 일상생활은 어려움이 없으셨는데, 실명 후 단독보행이 힘들었으며 식사 또한 혼자 못 차려 드시다 보니 정말 누군가의 손이 절실히 필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로인해 정말 가족으로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 후 언니 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언니와 남동생은 둘 다 회사에 출근 하다 보니 전과 같이 혼자 계시는 일이 많았으며 낯선 공간에서의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식구들과 상의하여 여러 고민 끝에 어머니에게 요양원 가시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안 가시겠다고 한 1년을 버티시더니, 그 사이 동안 시력 악화로 더 이상 본인도 어쩔 수 없다 싶으셔서 요양원에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청에 신청 후 요양원 담당 선생님과 간호사분께서 집에 방문하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요양원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그로인해 더욱 어머님이 결심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로암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입소 후 실로암에서 즐겁게 지내시는 듯하였으나 행복은 잠시 어머님 치매 증상으로 인해 가족들은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이런 어머님의 모습이 낯설고 적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근래 어머님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단정하시고, 남한테 민폐끼치시는 것을 싫어하고 조용하신 분이었습니다. 혼

자서 교회 잘 다니시고 생활이나 집안 살림으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사회생활은 안 하시다 보니 거의 모든 생활이나 사고 중심이 집안일이었습니다.

전 아직도 우리 어머님이 2013년도에 마늘 같아 놓은 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해마다 김장철 준비한다고 해 놓으셨던 것인데 실명 후 못하게 되니까 그게 냉동실에 쌓여있다가 그걸 제가 가져와서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2013년도 것도 그저께 내놔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부터가 어머니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실로암요양원을 정말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한 곳입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다른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요양원 생활하신지 만 3년이 되었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분 한분이 진심으로 열심히 케어 해주시는 것 저희들도 보고 느껴져서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머님 치매 증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 나이도 드시고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치매 증상이 악화 되면 본인 스스로도 힘드실 것이고 선생님들도 힘드신데 그럼 정말 치매 전문 요양원으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지금 시설에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처럼 우리 어머님 잘 섬겨주시길 바라며 실로암 가족들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로암 이야기



2016년 12월 입사
언어치료사 김태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의 언어치료사로서 실로암 요양원에 입사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역내 치료센터에서 아동들만 치료하던 저는 실로암 요양원에 입사하고 나서 성인을 치료하기 시작하였고, 센터에서 만나 보지 못했던 다양한 장애를 가진 거주인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적장애, 청각장애, 뇌성마비 등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하여 공부하였으나, 시각장애인 및 시, 중복 장애인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며, 처음에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부분이 시각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다 보니 대화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 중복장애인에게는 어떠한 활동을 어떻게 접목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근무해야 하는 직장이며, 계속 함께 생활해 나가야 하는 분들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로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책과 함께 논문을 찾아보게 되었으며, 교수님과 선배들 및 본 법인에 있는 설리번학습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언어치료사에게도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각 거주인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게 접근하며, 거주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맞는 언어 자극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실천으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자 점차 어르신들이 웃으며 인사해

주시고, 안부를 물어보며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모습에 관계형성과 함께 조금씩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본 요양원에서 언어치료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주인이 있습니다. 음성장애를 가진 거주인으로서, 편마비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본 거주인의 경우 초기 평가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방문하였으며, 음성검사와 함께 성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음성검사 시 연구개의 이상으로 인해 비음이 많이 섞여 있다고 하였으며, 성대검사결과 성대에 경직이 많이 되어 거친음성 및 비음이 많이 섞여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근육이 굳어 발성하는데 많은 힘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과기능적 음성장애 환자였습니다. 제가 치료한 기법들은 청각적 피드백, 노래조로 말하기, 후두마사지, 하품-한숨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완기법들을 통하여,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치료를 받지 않으려는 모습과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완기법들의 활용이 익숙해지며, 스스로 나아진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 후 언어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생활도 밝게 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과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 실로암 요양원에서 언어치료사로서 소소한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 요양원에 슬로건인 “웃음꽃이 활짝 피는 요양원”처럼 중증장애를 가진 거주인 분들이 항상 건강하게 웃으며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저 또한 언어치료사로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삶



건강산책(양주 나리공원, 9/20)

양주 나리공원 천일홍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해마다 축제가 열리는 나리공원에는 천일홍, 핑크뮬리 등 다양한 꽃들이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고 장미정원에서의 산책을 통해 시각이 아닌 촉각으로 무르익는 가을을 한껏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야외나들이(청평자연휴양림, 9/26~9/27)

거주민들과 함께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청평자연휴양림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활용하여 1박 2일 야외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을 배경으로 함께 숨쉬며, 가슴 한켠 가지고 있는 걱정과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유로운 한 때를 보냈으며, 산 위에 올라 나무와 들풀들 사이로 내려다 보이는 맑고 푸른 청평호 반대 대자연의 청정함을 맘껏 느끼고 왔습니다.

활기찬 삶



하계수련회(안고령 계곡, 8/2)

경기도 장흥에 위치한 “안고령 계곡”으로 시원한 실로암요양원 하계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거주인과 직원들 모두 함께 어울려 시원한 경치와 깨끗한 계곡물을 배경으로 한여름의 더위를 모두 씻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물놀이와 함께 닭백숙과 닭볶음탕, 도토리묵과 감자전, 과일 등을 즐기며 최고의 피서를 보낸 하루였습니다.



추석행사(실로암요양원, 9/10)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 실로암요양원 추석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현대옥 운영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거주인들과 함께 어울려 진행된 “윷놀이와 송편 받아라 게임”을 즐겁게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내내 아이들 마냥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며, 특식과 함께 산적꼬지와 동그랑땡을 직접 만들어보는 요리교실로 명절 분위기를 한껏 내어 보았습니다.

행복한 삶



요양원개원 9주년 행사(7/19)

“웃음꽃이 활짝 피는 행복한 요양원”이라는 슬로건으로 2010년 개원이후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 어느덧 개원 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장애인거주시설로서의 입지를 위한 성장과 발전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름다운 손길을 보내주신 자원봉사자, 후원자분들과 보호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장체험 외식(8/8)



현장체험 피복구입(분기 1회)

입추를 맞이하여 남원추어탕으로 외식을 다녀왔습니다. 보양식으로 막바지 여름더위를 힘차게 떨쳐버릴 수 있기를 기원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항상 친절하게 맞이해주시는 식당 사장님 덕분에 더욱 만족스러운 외식이었습니다.

가을을 준비하기 위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의정부 홈플러스로 피복구입을 다녀왔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피복을 미리 생각해두고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만져보고 입어보며 만족스러운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삶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조기검진(7/5)



심폐소생술 훈련(8/1)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양주시 보건소와의 연계를 통해 치매예방 교육 및 치매 조기검진을 진행했습니다. “치매를 일찍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교육으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예방과 조기치료를 통해 치매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양주소방서와 연계하여 응급처치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재난 안전 전문강사의 이론 및 실기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진행하여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가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거주인 인권교육(8/21)



운영위원회(7/11, 8/28)

거주인들의 장애특성 및 연령을 고려한 눈높이에 맞는 인권 교육(연2회/4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이해와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침해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3, 4차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안건으로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2019년 추경예산안, 장애인 금전관리 현황 등을 논의하였으며, 회의를 통한 요양원 운영에 있어 주요사항을 자문받고 결정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동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윤리교육(7/15)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종사자교육(9/10)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의 윤리개념 및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고 종사자들 모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지켜야 할 윤리와 가치에 대해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새로 법제화된 제도로 직장내 동료들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문화를 만들고 동등한 입장에서의 직장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만큼 서로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상담기법 교육(9/16~9/20)

거주인들과의 상담시 직원들의 상담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해결중심의 상담기법을 활용한 일주일간의 다양한 주제강의로 거주인들의 사례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자립지원서비스

자립지원서비스란 시설에서 생활하는 거주인들의 독립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 향상 및 다양한 사회활동 등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준비가정, 가정체험, 체험홈체험, 직장체험, 가정기술체험, 가정식지원, 금전관리교육, 직업상담, 일상생활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립심 고취와 함께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식 지원

시설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거주인 당사자가 추천한 음식을 종사자들과 어울려 직접 만들어 보고 평범한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편안한 식사의 기회를 제공함.



직업체험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장애인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면접과 직장체험을 통해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자존감 향상을 위해 진행함.



가정체험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단기체험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이해와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 기술습득, 가족 구성원간 역할분담 등을 통한 가정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이해하고자 가정체험을 진행함.



금전관리교육

경제활동에 있어 독립적인 금전관리를 위하여 경제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거주인 스스로 금전을 사용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함.

외부지원 및 도움의 손길



기능보강사업 선정에 따른 LED 전등 교체공사

- 지 원 처 : 서울시 기능보강 사업
- 금 액 : 750만원
- 지원내용 : 실로암요양원 본관 LED전등교체
- 기대효과 : LED 전등 교체로 전기료 절감 및 친환경 제품으로 인한 환경보호



SSCL 장애인 신체기능향상 프로젝트 선정으로 전문재활장비 기능보강

- 지 원 처 : SSCL포르쉐
- 금 액 : 300만원
- 지원내용 : 뉴스포츠 전문재활 장비 9종
- 기대효과 : 전문재활장비 보강으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안정감 유지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



아름다운 손길

자원봉사자 소개 – 난곡제일교회



난곡제일교회는 관악구 난곡동에 위치한 교회로 유정식 담임목사님을 모신 따뜻한 신앙공동체입니다.

제일교회의 찬양팀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여성 중창팀과 어린이 중창팀, 악기로 찬양하는 앙상블팀이 있습니다.

10여년 전부터 찬양팀을 꾸려 교회 내 각종 절기와 행사에도 참여 하지만 교회 밖의 시설을 찾아 함께 찬양하며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땐 유치원생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아이들도 꾸준히 함께하며 어느덧 자라 청년들이 되었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제 뜻을 다 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감사하여 미소짓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우쿨렐레팀이 새롭게 결성되어 큰 열정을 가지고 동참하게 되니 그 기쁨이 배가되는 것 같습니다

'참 평화롭다' 이것이 저의 실로암에 대한 첫인상이었습니다.

늘 분주함 속에 살다가 긴장감을 내려놓고 너른 품에 깊숙이 안기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찬양팀들도 모두 '너무 좋다'고 입을 모아 칭찬하십니다.

이런 여유와 평화로움 뒤에 선생님들의 부지런한 섬김

과 수고가 있음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준비한 곡들을 연주할 때 따라 부르시며 박수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니 큰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방문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욱 가족과도 같은 친근함이 더해갑니다. 비록 자주 벙지는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난곡제일교회와 실로암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 수록 더욱 그리하자(히10:24-25)



실로암 칼럼

그게 그런 뜻이었어?

우리 요양원에 시청각장애인 거주인이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서 2011년 12월 우리 요양원으로 옮겨 왔는데, 간단한 신상 기록 밖에는 언제 놓아가 되었으며 시각장애인인 되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름대로 불임성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쉰이 넘었음에도 천진난만한 그의 행동은 어떤 때는 우리 모두를 울컥하게 만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쉬운 대로 수화라도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대화가 되긴 하겠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다고 일반 글자를 아는 것도 아니어서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든 대화를 해볼 요량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는 알려 할 것 같아 우선 나온 배를 만져 주었습니다. 그 당시는 몸무게가 85kg나 되었기 때문에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배를 만져 주면 내가 눈가를 금방 압니다.

그리고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식사 시간에 식당으로 안내하고 생활실의 화장실과 옷장 안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된 십자가를 준비했습니다. 이걸 받아 들더니 가톨릭에서 하는 성호를 긋더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시늉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양팔을 벌리고 못을 박는 시늉을 하고 발에도 양쪽에 못을 박는 시늉을 하더니, 목을 자르는 시늉을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길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바디랭귀지로 답답할 때면 내게 시늉을 합니다. 치약이 없다, 칫솔이 다 마모가 되었다, 화장지가 없다, 덤다, 춥다 등등.

그리고 식사에 대한 얘기를 언제부턴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가 절단되어 숟가락 쥐기도 어려운 이 친구에게 반찬과 밥과 국을 함께 넣어 먹을 수 있도록 배식을 했는데 식사 속도도 엄청 빠르고 맛있게 먹기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얼마 전부터 손

실로암요양원 김무경 상담지원팀장



을 가로저으면서 ‘퇴, 퇴’라고 해서 혹시 매운 게 아닌가 싶어 매운 것을 주지 않기도 했는데 자주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행동을 보다가 혹시 반찬과 밥을 따로 달라는 게 아닌가 싶어 그날 저녁 식사부터 그렇게 시도해봤습니다. 밥, 국 그리고 반찬을 따로 식판에 담아 손으로 만져보게 했습니다. 좋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허겁지겁 먹던 식사가 천천히 밥과 반찬과 국을 번갈아 맛있게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생활실로 안내하는데 손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는 시늉을 하면서 왼손 엄지손가락을 펴 보이며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그렇게 먹게 해줘서 고맙다는 시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김이 반찬으로 나왔는데 그걸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싸더니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게 그런 뜻이었어?’

저와는 8년을 함께 했습니다. 요즘은 우리 직원 모두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본인의 의사도 정확하게 전달하고 우리도 그런 제스처를 통하여 의사를 주고받습니다.

식사를 많이 안 준다고 투정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식사를 많이 안 주는 게 아니라 혈당이 높아서 배가 쉬고프다 보니 허기가 지는 건데, 달라는 대로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 더불어 식단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빨리 죽는다는 제스처를 알아듣고 작업치료 선생님을 따라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희준씨, 우리와 함께 오래오래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후원 및 자원봉사 안내)

7~9월 후원금 결산보고

(단위: 원)

세입	세출	
지정후원금	300,000	사무비
비지정후원금	9,116,600	재산조성비
기타	-	사업비
합계	9,416,600	합계
		8,571,349

7~9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단체

무지개호스피스,
아이노스양상불,
jj church,
반야월예술단,

개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이문순, 곽성룡,
김지현, 김경은,
김정화, 고윤옥,
윤아영, 이소민,
김기정, 김유민,
류예림
강승지, 강영순, 고선희, 권수진, 김경민, 김광희, 김근모, 김다혜, 김말년, 김무경, 김미경, 김병숙, 김선주, 김선태, 김아름,
김영선, 김영준, 김옥립, 김은철, 김은희, 김인자, 김정현, 김주리, 김태웅, 김태운, 김태훈, 김현정, 김형도, 김혜옥, 김호직,
나가연, 남성우, 노형지, 당화정, 박고심, 박성일, 박영숙, 박은애, 박인수, 박정훈, 박주희, 박지연, 박지훈, 박현우, 백기령,
서동균, 안해술, 엄현희, 오창래, 유자영, 유춘복, 유현서, 유흥진, 윤경진, 윤동혁, 윤찬호, 이강일, 이광열, 이금선, 이미경,
이봉희, 이상미, 이순희, 이승옥, 이영태, 이윤희, 이재영, 이진용, 이창진, 이하은, 이현규, 임국화, 임은성, 임준규, 장은경,
장혜승, 전예리, 전정희, 전현출, 정구연, 정지혜, 정찬주, 정혜미, 정혜정, 정혜진, 조경조, 조미경, 조영수, 조영순, 지정규,
최도영, 최문우, 최영아, 최영훈, 최은미, 최준호, 한재근, 한주희, 험은창, 함지훈, 함현식, 홍경란, 홍성현

후원 안내

☎ 031-876-2900

후원하신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후원	치료, 교육 등의 재활서비스 지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 계좌번호: 793901-00-052667 (국민은행) 실로암요양원
결연후원	장애인과 1:1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전액은 결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 사용
물품후원	금전적 후원 외 생활용품, 의류, 가구, 운동기구 등
해피빈	http://happylog.naver.com/silwelnh.do

자원봉사 안내

☎ 031-876-2900

중·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직장인이 개인이나 단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력봉사활동	생활실 청소, 안내보행, 말벗서비스, 식당보조활동 등
외부활동	건강산책, 야외나들이, 현장체험 등
전문봉사활동	이미용봉사, 운전봉사, 사진봉사 등
치료봉사활동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웃음치료 등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



인생이 하나의 풍경이라면,
누군가 건넨 친절과 사랑은
잊하지 않는 기억의 의자가 된다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절대 혼자
내버려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 용기, 의지, 신념이
늘 모두와 함께한다.